



배포 일시	2022. 11. 28.(월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	

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'심각' 단계로 격상

- 중앙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집단운송거부에 총력 대응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,
 - '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'에 따라 11월 28일(월)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'경계'에서 최고 단계인 '심각'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.
 - *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(총 4단계) : 관심 → 주의 → 경계 → 심각
 - 국토부는 11.27일 오후에 행안부, 경찰청,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,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'심각'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.
 - 앞서,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(11.14) 직후인 11.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'관심'에서 '주의'로 상향한 바 있으며, 집단운송거부가 시작(11.24)되기 전날(11.23일) '주의'에서 '경계'로 상향한 바 있다.
-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,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,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,
 -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다.

□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'심각'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,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'중대본')로 강화되며,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·경찰청, 국방부, 해양수산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.

* 또한,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2차관에서 국토부장관으로 격상

○ 이를 위해 11.28일(월) 오전 10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.